

김성연

•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리더보드 점수에 감정소모하지 않으나 완성도 있고 어느정도 설명력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적으로는 진행한 작업들을 모두가 이해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소통하려는 노력과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 나는 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베이스라인으로 SASRec 이라는 난이도 있는 딥러닝 모델을 제공해주시고 오피스 아워에서 이 모델을 이해할 정도면 다른 딥러닝 모델을 쉽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베이스라인 코드를 한 줄 한 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기록과 팀원과의 상황 공유를 위해 주석을 섬세하게 달았는데 팀원들이 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딥러닝 구조를 밑바닥 부터 짜는 연습도 진행했는데요. 간단한 MF 모델을 팀원과 페어코딩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성능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파이토치 문법이 보다 친숙해졌고 딥러닝 구현에 자신감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개선했는가?

먼저 데이터 구조와 대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모델인 베이스라인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모순점을 찾거나 모델 개선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베이스라인을 계속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andb sweep을 이용하여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모델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wandb swee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하이퍼파라미터들에 대한 시각적인 직관을 얻고 적절한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 전과 비교해서, 내가 새롭게 시도한 변화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제공한 베이스라인과 과제를 코드단위로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링이 다소 부족했는데 이를 통해 확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 팀원 한명과 함께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페어코딩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적으로 뛰어난 팀원과 같이 진행하여 많이 배웠고 협업과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 마주한 한계는 무엇이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팀원들이 희망하는 목표가 조금씩 달랐는데 팀장으로써 이를 캐치하지 못해 프로젝트 진행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팀원은 과제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어느 팀원은

좋은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팀 적으로 하나가 된 느낌 보다는 각자 자신의 공부를 진행하는 느낌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 **한계/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새롭게 시도해볼 것은 무엇일까?**

프로젝트 시작 전 서로의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끊임없는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팀원의 생각을 잘 듣고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모더레이터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단순히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